

# “고국에도 분점 개설이 내 꿈”

## 오사카서 고서점 운영하는 재일교포2세 郭日出씨

일본 오사카에서 고서점 ‘日之出書房’을 경영하는 재일교포 2세로, 한국출판인들과 수서가들에게도 비교적 면식이 넓은 郭日出씨(41)가 지난달 말 고국을 다녀왔다. 25세 때 고서점을 시작, 이제 자신의 日之出書房을 “한국관계 책이 꽤 많다고 소문난 서점”으로 키워놓고 있는 郭씨의 이번 고국방문은 사전류 구입 때문. 서울올림픽 이후 재일동포사회에 불기 시작한 ‘한글익히기’ 바람이 상당해 사전류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고국방문에 문히기를 원하는 장인 장모의 ‘묘자리’를 미리 봐두기 위한 것도 郭씨의 이번 고국방문의 또 다른 목적. 보성사 대표 이경훈씨의 통역으로 郭씨를 만나보았다.

—먼저 日之出書房의 소개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生野區의 新今里 4丁目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작년엔 지점도 새로 개설했다. 13,000권 정도의 고서 및 신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 약 2천권이 한국 및 조선관련 도서이다.”  
 —언제 서점을 시작했는가. 또, 그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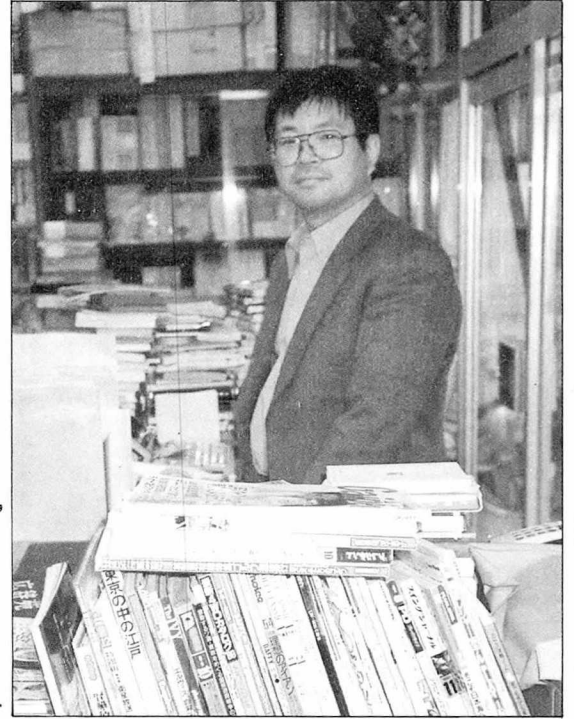
“25세때부터이니가 1975년경이다. 그전엔 폐품회수업을 했었는데, 그 일로 生野區일대 야시장을 돌던 경험을 밑천 삼아 자본금도 전혀 없이 시작했다. 서점을 차리게 된 동기로는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나 생활방식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을 제공하자는 생각이 가장 컸다. 특히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재일동포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방황—일본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한 한국인도 될 수 없는—이 안쓰러웠다.”

—서점을 경영하며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

었다.  
 “서점을 차릴 때 2세로선 처음으로 모국어의 본명을 내걸고 시작하니가 주위의 교포친지들이 한국어 본명을 내놓으면 실패한다고들 말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한국인으로서의 본명을 내걸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 88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조선에 관련된 책을 다루어서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야 물론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영면에서 비교적 탄탄한 기초를 닦았다고 자부한다. 요즘도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글자가 붙은 책이면 무엇이든 사모으는데, 수요에 비해 고서가에 실제로 나와 있는 물량이 태부족이다. 수요가 30이라면 실제 들어오는 책은 1일 정도로 절대량이 부족한 점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서점의 주요 고객들은.  
 “아직은 교포들보다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더 많다. 한국에 관한 고서의 거의 90% 가량을 일본인들이 사 가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이후 부쩍 늘어난 한국에의 관심으로 인해 나이많은 교포들도 새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우리 교포 고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본다. 한국관계서적이 많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고국의 출판인이나 수서가들도 가끔씩 들르는 편이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달라.  
 “우선 오사카의 내 서점을 일본인들의 그것에 못지 않게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다음으론 고국의 일본 관계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본어자료를 싣았으므로 공급할 수 있는 ‘한국점’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자랑 같지만

“서점을 차릴 때 교포2세로선 처음으로 모국어의 본명을 내걸고 시작했더니 주위의 친지들이 본명을 내걸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어쩌면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었겠지만, 한국인으로서 내 본명을 내걸고도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사카시 자신의 서점 매장에서 郭日出씨.

이제는 내 신용만으로 일본 전국의 고서점에서 얼마든지 책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한국점의 개설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석달 체류 예정으로 금년안에 다시 한국에 와 우리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생각이다.”  
 1950년생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를 원적으로 갖고 있는 郭씨는 전형적인 지수성가형 서점인. 9형제의 여섯째로 아홉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자라서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마쳤다. 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한 몫을 벌충하고 연구자들에게 자

료를 제공하자는 결심에서 고서점을 시작해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책을 값싸게 공급하는 점포를 만드는 것이 고서점을 경영하는 재일동포로서 모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하는 굳은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런 그에게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재일동포의 긍지를 읽을 수 있다. “장차의 3세, 4세 교포들에게도 한국인으로서의 희망과 긍지를 연면히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다.  
 郭씨의 일본내 연락처는 전화 06-754-0607.

脱 手 作 業 선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貰겠습니다.

Total Publishing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민기획**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